

11월의 기도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디모데전서 2장 1~2절>

1.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님의 해외성회와 DCEM의 선교사역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우심에 감사합니다.
2. DCEM총재 조용기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기쁨 부으심이 충만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3. DCEM총재 조용기 목사님의 해외 성회 준비 가운데 DCEM과 모든 준비 기관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의 영을 부으사, 각자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4.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이 있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땅이 하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테러, 가난과 질병, 지진의 피해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사단의 세력이 떠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6. 이 땅에 동성애와 이슬람 문화가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믿음의 성도들이 더욱 깨어 기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올바른 결정을 내려 하나님의 주권 하에 이 나라가 다스려지게 하여주시옵소서.
7. 대한민국이 국가적으로 큰 혼란과 위기 속에 있습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 더욱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성경말씀대로 깨어 기도하며 이 땅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국가적 혼란과 위기를 야기했던 문제들이 잘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 나라가 바로 서게 하옵소서. - 아멘-

지난 한 달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순복음동경교회, 순복음신안산교회(최용우 목사), 오사카순복음교회에서 후원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정환, 김태승, 나인규, 순복음정릉교회 (조종숙 목사), 원소선, 정경자, 최인철, 함석숙 그리고 무명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후원을 위한 계좌안내 :
계좌번호 181-22-02127-7 (KEB하나은행)
예금주 : 디시이엠

조용기 목사 특별 메시지

언어의 힘

잠언 6장 2절은 “네 입의 말로 네가 얻었으며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고 기록합니다. 말이 우리를 얽어매고 붙잡아 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술의 말로써 먼저 우리가 자유와 해방을 얻고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생명의 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2절은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있는 자에게는 더 가지라고 주시고 없는 자는 있는 것조차 빼앗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스스로 “안된다. 없다”라는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십시오. 없는 것을 보지 말고 있는 것을 찾으십시오. 사람이 없는 것을 찾으려면 한이 없고, 반대로 있는 것을 찾으려면 굉장한 힘을 써야 합니다.

영국의 신학자 존 위클리프는 “혀에는 뼈가 없지만, 혀는 뼈를 부숴뜨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말 한마디에 우리의 삶이 세워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혀의 권세를 삶 전체를 불사르는 불에 비유했습니다. “혀는 적은 것이나 이 혀가 온 몸을 불태운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6장 45절은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고 기록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생각과 꿈과 믿음이 말을 통해서 밖으로 나와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의 삶의 덩어리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생각으로 꿈으로 믿음으로 말로 우리의 삶과 운명과 미래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굉장한 것입니다.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면 온 나라와 세상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굉장히 귀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나약하고 연약하여 “할 수 없다”하고 포기하는 말이 아닌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하는 말로 자신을 축복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DCEM 뉴스레터 구독신청 안내

DCEM에서는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선교사역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 간행물 '뉴스레터(DCEM NewsLetter)'를 제작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DCEM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 또는 정기간행물을 무료로 받아보시기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DCEM에 연락주시면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TEL : (02) 6181-5064 / dcem@davidcho.com



한·일 선교협력회의 통해 ‘한 발 더 다가서는 일본 선교’

한국과 일본 양국 교회의 발전과 아시아선교를 확장하기 위해 양국 교회의 역할을 논의하고 함께 기도하기 위한 제3회 한·일 선교협력회의가 지난 10월 24일과 25일 양일 간 일본 도쿄 소재 빌라 폰텐 호텔과 순복음동경교회(담임목사 시가끼 시게마사)에서 열렸다.

양국 대표단이 보다 효율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한국어와 일본어로 동시통역(김의현 목사) 됐으며 한국 대표단은 이영훈 목사를 비롯해 고명진 목사(수원중앙침례교회), 김종복 장로(4차원영성글로벌포럼 회장), 박성민 목사(한국대학생선교회 대표), 임석순 목사(한국중앙교회), 조봉희 목사(서울지구촌교회), 지형은 목사(성락성결교회), 진재혁 목사(지구촌교회), 한기채 목사(중앙성결교회), 한홍 목사(새로운교회)가 참석했으며 일본 대표단은 시가끼 시게마사 목사(순복음동북아일본총회장), 테라다 후미오 목사(일본 펜테코스테 협의회 의장), 코바시 코이치 목사(일본 그리스도교협의회 의장), 호소이 마코토 목사(일본복음연맹대표), 요나이 히로야키 목사(고쿠분지침례교회), 이치무라 카즈오 목사(VIP인터내셔널클럽), 일본성서공회 관계자 등 14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양국의 사회적인 변화와 국제적인 흐름에 따른 대처방안,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181개국의 750만명에 이르는 디아스포라 선교와 미래전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한국과 일본이 동시에 고민하고 있는 고령화, 저출산 등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복음으로 돌파해 갈 것인지도 함께 고민했다.

한국 대표단과 일본 대표단의 의견을 종합해본다.

◎ 한국대표단 의견 종합
-세계 기독교 인구는 3분의 1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무슬림도 30%를 차지하는데 세계 인구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아시아는 기독교 인구가 9%를 넘지 않는



다는 발표가 있었다. 아시아 선교는 이제 아시아 사람들이 해야 한다.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하고 모든 평신도는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 현재 한국에는 200만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3만명의 탈북자가 있다. 이들을 위해 관심을 갖고 있으며 통일한국을 대비해 청년들을 훈련하고 있다.
-한국이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은퇴자 중에서 건강한 전문인력 기독교인들이 많다. 이들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해 평신도 자비량 전문인 선교사로 훈련하는 것도 방법이다. 최근 무슬림권 중동에서는 가정부를 통해 전도된 사람이 선교를 통해 전도된 사람보다 많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평신도 선교사훈련은 중요한 부분이다.

◎ 일본대표단 의견 종합
-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아직 길을 찾지 못한 일본 젊은이들에게 성경속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갑작스런 상황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말해준다. 내가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발상전환을 강조한다. 청년 디아스포라 선교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갖고 있다.
- 일본 스포츠 인구는 8000만 명에 이르지만 크리스천 스포츠 인구는 적은 편

이다. 2019년 럭비월드컵과 2020년 동경올림픽을 겨냥해 스포츠 미니스트리(ministry) 정착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 초 고령화 사회 일본에서 장례문화가 바뀌고 있다. 묘지를 중시하고 절에서 주관하던 장례식이 약화되고 기독교식 장례문화에 호감을 갖는 반전의 시대를 맞고 있다. 이것은 또다른 기회다.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다고 확신한다.
- 2011년 311 동일본 대지진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관계이고 사랑이며 함께 걷는 것이라고 느꼈다. 당장 빵을 먹을 수 없는 어린이에게 빵을 주는 사회봉사가 필요하다. 사랑의 싹이 커지면 선교영역은 당연히 넓어진다. 청소년과 함께 걷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 한국과 일본은 과거의 불편한 역사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와 용서와 사랑으로 풀고 나가야 한다. 만나서 서로 얼굴을 보고 얘기하면 이해가 되고 새로운 것을 창출해 낼 수 있다. 일본 교회는 실제적으로 한국 목회자의 도움이 필요하다. 한국교회의 뜨거운 열정이 이런 교류를 통해 일본에서도 일어나기를 바란다.

그리고, 20여 년 만에 일본 순복음동경교회에서 초교파 교역자세미나를 진행하였으며, 이 세미나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시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시니라” (고린도전서 2장 9~13절)

님의 예비한 손길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은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서 채워주시기를 기다리면 하나님이 부족함없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1. 죄인과 병든 자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 갈보리 십자가에 보혈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용서와 의를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손발을 씻습니다. 손과 발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깨끗이 씻습니다. 영적인 생활도 죄를 짓지 않고 의롭게만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심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발이 더러워지면 원망하지 않고 늘 씻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를 지으면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병든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병든 자도 갈보리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께로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이 치료를 예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항상 용서와 치료를 온몸에 담고 다니시며 죄인을 구원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와 병을 고치기 위해서 당신 몸이 은혜를 담고 다니는 것처럼, 지금 이 자리에 우리를 용서하고 치료하시는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항상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을 때,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지난날들을 뒤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반드시 어려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예비해놓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급하게 물질이 필요한데 그 물질이 어디에서 나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 물질이 필요할 줄을 알고 계심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예비할 것을 믿고서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

2.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사는 우리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믿고 알면 두려워할 리가 없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대가를 주고 우리를 샀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은 무언히 굴러 들어온 떡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아시고 원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그리스도의 피로 값 주고 사신 것입니다.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최근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일과 삶의 균형 부문에서 38개국 중 36위로 사실상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주당 근무시간 50시간 이상인 노동자의 비율이 OECD의 평균보다도 10%나 높은 것입니다. 이 말은 허리가 휘청이도록 일을 많이 하고 먹고 사는 사람이 한국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 동안 일하면서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아마도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한국사람 각자 각자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은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람이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우리는 왜 평안할 수 있는가?

우리는 왜 평안할 수 있습니까? 이사야 43장 2절은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물이 사람을 침몰하지 못하고 불이 인생을 태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위기에 처해 있어도 우리와 같이 계시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플로렌스 윈은 20세기 초 미국에서 화가와 작가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성공과 긍정적인 삶에 대한 책을 써서 지금까지 수천만이 넘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미치고 있습니다. 플로렌스 윈은 평소 다음과 같은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고 합니다. “나는 주님의 딸이니 나의 부유한 아버지께서 부유함을 나에게 쏟아 부어 주신다. 나는 주님의 딸이다.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는 것이 성공적인 삶의 비결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마 7: 9-11)

우리는 크고 작은 문제 속에 둘러싸이고 심신에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삶의 과정에서 우리가 잘 살고 행복하게 살려면 고난을 메꿔줄 물건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많은 고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하여 싸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의 형편을 다 아시고 필요한 것들을 예비해 놓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아지고 향상되려면 꿈을 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마음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적극적인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꿈을 꾸면, 그 꿈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꿈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가 믿은 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생겨납니다. 주님을 더 깊이 믿고 더 크게 믿어서 우리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도쿄서 열린 ‘초 교파 교역자세미나’ 일본 목회자 초미의 관심



지난 10월 24일 순복음동경교회의 새벽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새벽부터 성전을 가득 메운 성도들을 위해 한국어와 일본어 동시 통역으로 새벽기도가 이어졌다. 한국인과 일본인이 국적을 넘어 성도로 하나되고 기도로 하나되는 순간이었다. 성도들은 이날 낮부터 순복음동경교회에서 열리는 초 교파 교회성장세미나를 위해 열정적으로 기도했다.

순복음동경교회를 담임이자 DCEM 사무총장을 맡고있는 순복음동북아일본총회장 시가키 시게마사 목사는 ‘십자가의 길’(눅 19:1~10)이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예수님을 꼭 만나야겠다는 열정과 갈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삭개오의 열정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 한다. 삭개오가 오로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무에 올라갔던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이 새벽에 반드시 응답이 다가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순복음동경교회에서 24일 낮에 열린 ‘교회성장과 리더십’ 초 교파 교역자 세미나는 20여년 만에 열린 초 교파 세미나로 일본 전역에서 교파를 초월해 다양한 분야의 목회자들이 참석했다.

한·일선교협력회의(한국대표 이영훈 목사)가 주최한 이번 회의는 순복음동경교회가 주관하고 동 교회 실업인선교회가 후원했으며 주 강사로 이영훈 목사와 한기채 목사(중앙성결교회), 고명진 목사(수원중앙침례교

회), 박성민 목사(한국대학생선교회), 지형은 목사(성락성결교회)가 초청됐고 모든 세미나는 한국어와 일본어로 동시통역 됐다.

이영훈 목사는 환영사를 통해 “일본 교회를 이끌고 있는 리더들을 모시고 교회성장과 리더십을 주제로 하는 초 교파 교역자세미나를 개최하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고 세미나에 참석한 모든 동역자들을 환영한다”며 “강사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길 한국 목사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순복음동경교회 담임 시가키 시게마사 목사는 축사를 통해 “일본 교회를 위해 관심을 갖고 뜨겁게 기도해주심에 감사하다”며 “일본선교를 향한 이영훈 목사님의 계획이 아름답게 이뤄질 것을 믿는다. 한국과 일본에서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힘을 합쳐 사역하자”고 말했다.

한·일 양국 목회자가 함께 참석한 이번 세미나에는 일본 전 지역의 초 교파 목회자는 물론 순복음동북아일본총회 소속 선교사 및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임원진, 세계선교위원, 김종복 장로(4차원영성글로벌포럼 회장) 등이 참석했다. 순복음동경교회는 현재 재적성도 3000명 중 한국인 1800명, 일본인 1000명, 중국인 200명이 등록돼 있다.

최자실 목사 탄생 100주년 기념 컨퍼런스



세계최대교회인 여의도순복음교회를 일구는데 있어 조용기 목사의 동역자, 20세기 금식기도운동의 대표주자, 여성목회자로서 국내외의 성령운동에 앞장섰던 최자실 목사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컨퍼런스가 지난 10월 27일 한세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대강당에는 여의도순복음교회 목회자들은 물론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소속 목회자 등 교단 내외적으로 최자실 목사의 영향을 받은 목회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준비위원장 신문철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컨퍼런스에서 최자실 목사의 사역을 담은 영상이 상영됐다. 영상에서 “살면 전도, 죽으면 천국. 또 승리했습니다”라고 외치는 최자실 목사의 설교 모습과 교회 창립 30주년 행사 때 조용기 목사가 최자실 목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포옹하는 모습에 많은 참석자들이 눈물 어린 눈으로 그 때를 떠올렸다. 가슴 뭉클한 영상에 이어 DCEM 총재 조용기 목사가 최자실 목사와의 처음

만남부터 동역하며 세계최대교회인 여의도순복음교회를 세우기까지의 과정을 회상하듯 담담하게 말씀을 전했다. 조용기 목사는 “제게는 아직 천국에 가지지 않은 듯 생각이 든다. 지금도 어디선가 ‘할렐루야’ 외치며 오실 것 같다”고 말했다. 조용기 목사는 “최자실 목사는 나를 이끌고 도와주신 선배이자 존경하는 어머니였다”며 “우리는 최자실 목사님을 뒤 따라 꿈을 가지고 긍정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떠나지 않고 성령이 교회성장을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영훈 목사는 “이번 컨퍼런스를 준비한 한세대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전하고 발전기금 1억원을 한세대에 전달했다.

김성혜 총장은 “어머니 최자실 목사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여기 모였다고 생각하니 행복하다”며 참석자들을 환영하고 감사의 인사말을 전했다. 또한 함동근 목사(순복음한성교회) 등의 축사와 김성수 목사(순복음송파교회), 최명우 목사(순복음강남교회), 장한업 목사(타이페이순복음교회)가 각각 최자실 목사를 회상하며 인사의 말을 전했다.